

## 7. 守山・모리야마

### 1. 地域概観・지역개관

室町時代に蓮如(浄土真宗の僧侶)が守山を拠点に浄土真宗の教化をし、仏教をすすめて広めました。織田信長は安土に城を構え、湖南の水田地帯を支配の拠点として天下統一をめざしましたが、その一環として金森(守山市)に楽市楽座を許可し、商工業を振興する政策を行いました。豊臣秀吉も信長に引き続いて街道を整備し、守山宿の保護育成を図りました。

江戸期の寛永年間、徳川幕府から守山宿に制札(一般に知らせる伝達事項)が下されると、街道の整備とともに宿場が整い、朝鮮通信使が東門院で宿泊するなど、京発ち守山泊まりとして賑わい、京都、大坂にも劣らない活気あふれる宿場町となりました。

무로마치시대에 연녀(렌노, 정토진종의 승려)가 모리야마를 거점으로 정토진종을 널리 알렸다. 오다 노부나가는 아즈치에 성을 쌓고 비와호 남쪽 농경지대를 경제기반으로 삼아 천하를 통일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가나모리(모리야마시)에 「라쿠이 치라쿠자(자유로운 가게 운영)」를 허가하고 상공업 진흥정책을 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노부나가의 정책을 지어받아 도로를 정비하고 모리야마 숙소를 보호 육성했다.

에도시대에 접어들어 도쿠가와 막부가 모리야마 숙소에 세이사츠(制札: 일반 사람들에게 금지·전달 사항을 써서 길에 세우는 목판 게시판, 여기서는 보호 정책에 관한 막부의 명령서를 게시한 것)를 받으면서 도로의 정비와 함께 숙소가 정비되었다. 이후 조선 통신사가 동문원을 숙박에 이용했다. 모리야마는 교토, 오사카에 못지않게 활기 넘치는 숙박지였다.



東門院の正門・とうもん인 산문

## 2. 関連人物・관련인물

### 宇野春敷と徐慶元・우노 하루노부와 서경원

東門院にほど近いたま家(宇野宗佑元首相の実家)には、1748(延享5)年の通信使の一員であった徐慶元(ソ・キョンウォン)が、守山の郷士である宇野春敷(江戸時代の儒者である宇野醴泉の父)に贈った漢詩六曲(宿泊のお礼と思われる)が小屏風(こびょうぶ)に仕立てられ残っています。

我行万里客 我は行く万里の客  
 忽到此城中 忽ち到るこの町中  
 遇逢君顔美 偶たま逢う君の麗しい顔  
 自然悠心多 たとえ自然悠心多く  
 億君救一書 億君一書を救うも  
 素無善才華 素より善き才華なし  
 一夜未同胞 未だ一夜を同抱せずとも  
 不思夢中覚 夢中の覚めを思わずや

도우문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우노 가문(우노 소스케 전 총리의 집)에는 1748년 통신사 일원이었던 서경원이 모리아마의 하급 무사 우노 하루노부(에도시대 유학자인 우노 레이센의 아버지)에 준한시(숙박에 대한 답례로 추정)가 있다. 이 시 6편은 소병풍으로 만들어져 남아 있다.

나는 만리를 가는 손님  
 홀연히 도착한 이 마을  
 우연히 만난 님의 화사한 얼굴  
 우연찮게 수심도 많네  
 수많은 님이 구하는 글  
 처음부터 맞추로서 재주 뛰어남이 없네  
 아직 하룻밤을 함께하지 못해도  
 꿈속의 기억을 떠올릴 수 없네



守山宿の名残り・모리아마 숙소의 흔적

### 3. 疲れ取りの宿・ 숙소

平安時代の延暦年間に東門院が比叡山延暦寺の東方を守る目的で創建されました。正式名は比叡山東門院守山寺といいます。江戸時代には江戸に向かう朝鮮通信使の宿舎になりました。

江戸時代に守山は「京発ち守山泊り」と言われ、東下りの旅人が最初に泊まった宿場です。京都を出発した通信使一行は守山寺東門院にて宿泊し、膳所藩石川氏(のち亀山藩)が主として接待役となりました。

헤이안시대인 782년부터 806년간 히에이잔 엔라쿠지의 동문을 지킬 목적으로 도우몬인이 창건되었다. 정식 명칭은 '히에이잔 도우몬인 모리아마 데라'라고 한다. 에도시대에는 에도로 향하는 조선 통신사의 숙소로 이용되었다.

에도시대의 모리아마는「교토 출발, 모리아마 숙박」이라는 말대로 에도로 가는 여행자가 처음 숙박한 숙소이다. 교토를 출발한 통신사 일행은 모리아마데라에서 숙박하고 제제번 이시카와씨(그 중 가메야마번)의 접대를 받았다.



守山市にある江戸時代の「宿」の説明板・モリア마 시에 있는 에도시대 숙소에 대한 안내문

#### 4. 残された遺跡・남겨진 유적

東門院は1980年代に火災に遭ったためほとんどの遺品が焼失し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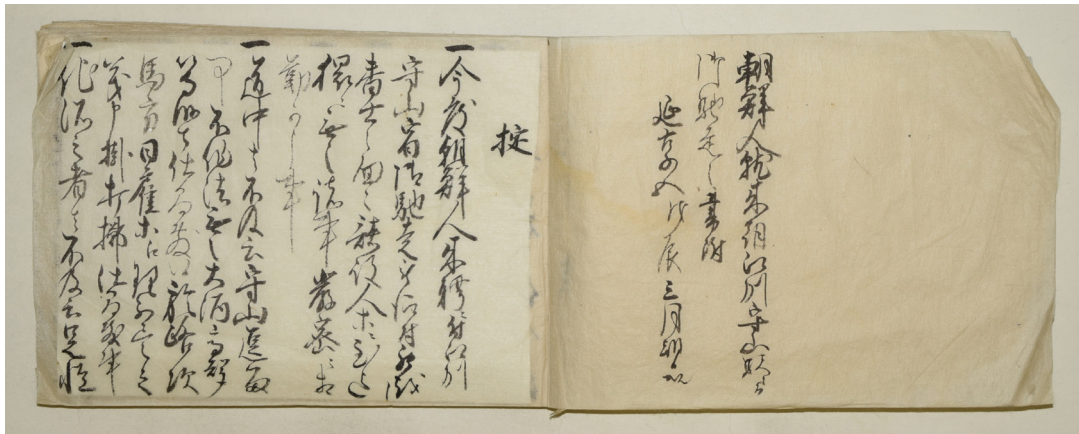
唯一残っている遺品として舟德利(ふなどっこり)といわれる焼き物が残されています。

亀山市歴史博物館(三重県)には「朝鮮人守山諸番所并馳走配膳之覚」など、亀山藩が守山の宿で接待したときの記録が残されています。

토우문인(동문원)은 1980년대에 화재로 대부분의 유품이 소실되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품은 후나돏쿠리라고 불리는 배모양의 술병 도자기다.

가메야마시 역사박물관(미에현)에는 당시 가메야마번이 모리야마 숙소에서 접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朝鮮通信使守山駅馳走の掟(亀山歴史博物館蔵)  
조선통신사 모리야마역 접대 규정(카메야마역사박물관 소장)